

제 7 강. 소그룹과 공동체

1. 교회의 원형은 예수님과 12제자이다.

교회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될 때 이상적인가? 대형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사실 교회가 제도적이 되고 숫자가 많아지면 물리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양육하기가 어렵게 된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그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청중을 만나기도 했고 그들에게 설교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는 항상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은 12명을 목회 하셨다. 12명의 제자와 3년 동안 씨름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나 사역의 말기에는 주로 12명과 함께 다니셨다. 특히 최후의 만찬이 그렇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흩어져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무렵에 그들에게 최후의 명령을 부탁하시기도 하셨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전부를 12명의 사도들에게 모두 위임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목회의 형태가 예수님의 목회의 패턴을 따르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목회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12사도 목회이다. 이러한 조직에는 예수님과 같은 리더가 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중간 리더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고 땅 끝까지 제자 삼으라는 사명이 있다.

이것을 좀 더 발전 시켜 보면, 12명으로 구성된 예수 공동체가 몇 개 모이면 소형 교회가 되고 더 많이 모이면 중형교회가 되고 몇 백 개가 모이면 대형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대형교회를 다시 분해해 보면, 12명 단위의 예수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2. 사도행전 교회의 출발은 120명이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120명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12명으로 구성된 교회가 10개쯤 모인 형태이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예수님과 가까운 여자들까지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 공동체의 리더는 베드로였고, 그 중심에는 12명의 사도가 있었다. 이들은 10배로 늘어났지만 예수님의 12 공동체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들이요 그들의 목적도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들이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 공동체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능력을 얻은 공동체요 성령님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공동체였다. 오늘날 교회에서 강조하는 소그룹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소그룹의 중요성과 역할과 사명과 조직관리는 강조되었지만 ‘성령 공동체로서의 소그룹’이 강조되지 않는 데 있다.

그 소그룹이 집단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없이 성경공부하고 교제를 나누고 전도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힘

을 잃어버리고 지리멸렬해 지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성령 받은 12명의 사람들은 물처럼 바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고 거리에 뛰쳐나가게 되었다. 진정한 소그룹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교회는 120명 정도만 되어도 세상을 뒤집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중형교회나 대형교회가 이러한 능력이 있는 소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3. 평신도가 섬길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소그룹 공동체이다.

모든 평신도가 누구든지 목회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는 소그룹을 필요하다. 평신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모든 평신도가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목회 현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들의 목회현장이 바로 소그룹이다. 따라서 소그룹이 강해 질 때 모든 평신도들이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고,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리고 전체 교회는 온 몸의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듯이 살아 움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평신도들이 사역할 수 있는 역할과 힘은 한계가 있다. 전문적으로 목회와 신학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거기에 준 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평신도의 경우에 조직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리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리더십의 문제요 조직을 관리하는 전문성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취약점은 평신도들이 상호 보완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때 무한한 힘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절묘한 팀 사역의 원리와 방법의 중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 밖에서는 이러한 평신도 운동이 극대화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단지 교회 안에서의 사역으로는 남 선교회나 여 선교회나 위원회 형태로 되어있고 목회로는 구역이나 순이나 하는 형태로만 존재한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여성 평신도의 역할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남성 평신도의 경우는 미미한 편이며, 성인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 있으나 청년들의 역할은 제한을 받는 편이다. 따라서 남성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 주느냐 하는 것과 취약한 청년들의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좀더 강력한 소그룹 목회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4. 연합과 일치 공동체

소그룹 운동이 확산되고 강해 질 때 교회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힘의 집중과 분산이다. 힘은 모아야 의미가 있고, 방향은 하나이어야 한다. 교회는 그 사역과 은사가 다양해질수록 연합과 일치가 중요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이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몸이 강조되고 성도의 입장에서는 신부가 강조된다. 몸이라고 할 때 다양성만큼 중요한 것이 연합과 일치이다. 동시에 교회가 다양화 되어가고 평신도의 사역이 극대화되어 갈수록 중심축이 견고해야 한다. 에베소서4장 3-6절에서도 “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권위주의는 막아야 하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고 확실성은 막아야 하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제도주의는 막아야 하나 제도는 존중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평신도 사역은 존중되어야 하나 평신도주의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연합과 일치에 있어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역할 분담과 동역이다. 평신도 사역의 이원론을 극복해야 한다. 그것은 지나친 성직자 중심의 생각이요 또 하나는 지나친 평신도 중심의 생각이다.

교파간 ,교회간, 성도간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도 12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와의 연합은 실패했다. 분열과 배신의 아픔을 겪은 것이다. 함께 살았고 함께 사역했지만 그들은 서로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분열, 다툼, 시기, 미움과 갈등으로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5. 치유와 회복 공동체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는 예수 공동체에 있어서 나타나는 결과는 치유와 회복이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12사도 교회 공동체의 삶이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삶은 사도행전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가르침 받으며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한 것이다. 그들 사이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이다. 치유되고 회복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느냐에 있다. 치유와 회복은 첫째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어떤 치유도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귀신이 떠나가는 사역이요 모든 저주와 죽음과 질병이 무너지는 사역이다. 둘째 사랑과 용서의 사역이다. 얼마나 진실 되고 깊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가 치유와 회복의 열쇠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내적 치유와 용서의 경험이 동반된다. 셋째 하나님과의 사역이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 회복되는 것이다. 분단의 고통을 넘어서고 분열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다.